

안녕하십니까?

임진년 새해 행복과 평화 그리고 희망의 나날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의왕시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법인은 노인복지관, 지역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 등 60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경험과 시설간의 교류를 통해 의왕시 어르신들에게 최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누구나 새해에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, 이러한 마음가짐을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. 하지만, 행복은 나만의 행복일 수 없습니다. 동체대비(同體大悲) 자리이타(自利利他)의 부처님 정신을 실천하여 고통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,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(同心同德)의 마음으로 화합할 때 비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

또한, 편견과 집착, 그리고 눈 앞의 나무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아상(自欺我相)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음을 명심하여, 깨우침의 지혜로 노력하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.

우리 모두 지금 딛고 선 그 자리에서 바르고 새롭게 한걸음씩 내딛어야 하겠습니다.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를 바라며, 그 희망의 싹이 내 이웃과 생명들의 원력으로 함께 이루어 결실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.

2012년 1월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

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 합장